

Real-time ESRS: FAST 50

50개 유럽 선도기업 ESRS 보고서 분석으로 본
ESG 정보공시 대응 시사점

April 2025

—
삼성KPMG 경제연구원





ESG 정보공시 시대,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50개 유럽 기업 분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를 맞이하며, 글로벌 ESG 정보공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정보공시 기준은 글로벌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공시기준과 유럽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입니다. 한국에서도 ISSB에 기반해 작성된 KSSB 기준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다수의 유럽 기업들이 2024년 연례보고서에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에 입각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완료하여 주목 받고 있습니다. KPMG는 2025년 1~2월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다룬 기업들 대비 빠르게 발간한 50개 선도기업을 'FAST 50'으로 지칭하며 50개 유럽 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FAST 50'의 50개 유럽 기업 분석 결과, KPMG가 ESG 정보공시 자문 및 검증 제공자로서 경험한 바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FAST 50'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AI(인공지능)의 영향, 복잡성 속에서 전략적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 등 지속가능성 보고를 강화하려는 기업들의 동향을 통해 유의미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ESRS,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또는 기업들의 자발적 보고에서 나타나는 동향이기도 합니다.

ESRS 보고와 관련하여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과 '재무 중대성(financial materiality)'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Omnibus 개정안과 함께 ESRS 공시 항목의 양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텍스트보다 정량적 데이터 항목을 우선시하고, 필수 공시와 자발적 공시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은 유지되지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KPMG의 'FAST 50' 분석 결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는 '단순화'와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ESRS는 초기 단계의 보고 프레임워크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가 프레임워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FAST 50' 분석이 ESRS를 비롯한 ESG 정보공시 동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eep up to date:
kpmg.com/us/RealTimeESRS

Contents

01 FAST 50 분석 방법론

02 보고서 분석 결과

다양한 범주의 IRO(영향 · 리스크 · 기회)
기후공시에 대한 준비도 향상
대부분의 IRO는 다섯 가지 주제에 집중
맞춤형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강조
영향 중대성 평가에 치우친 이중 중대성 평가
데이터 지표를 넘어 기업의 스토리를 전달
향후 AI 툴의 판독 가능성에 대비
전략과의 연계성 고려

03 한국 기업 ESG 정보공시 대응 시사점

→ 약어 및 주요 용어

1. FAST 50 분석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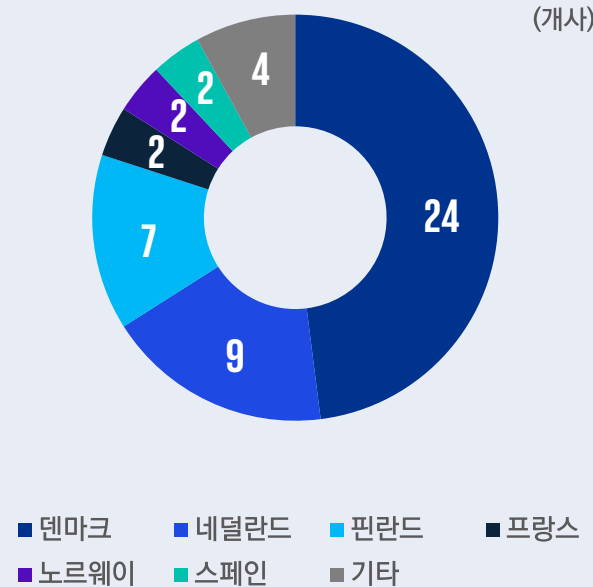
2025년 1~2월 유럽의 50개 기업이 새로운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첫 번째 세트(1st set ESRS)에 따라 공시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SRS가 적용된 첫 번째 공시보고서로 KPMG는 50개 기업의 공시 주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향후 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분석할 예정으로, 50개 기업에 대한 분석은 전체 기업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성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현재 ESRS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ESRS 관련 자문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KPMG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시 드립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Omnibus 개정안과 관련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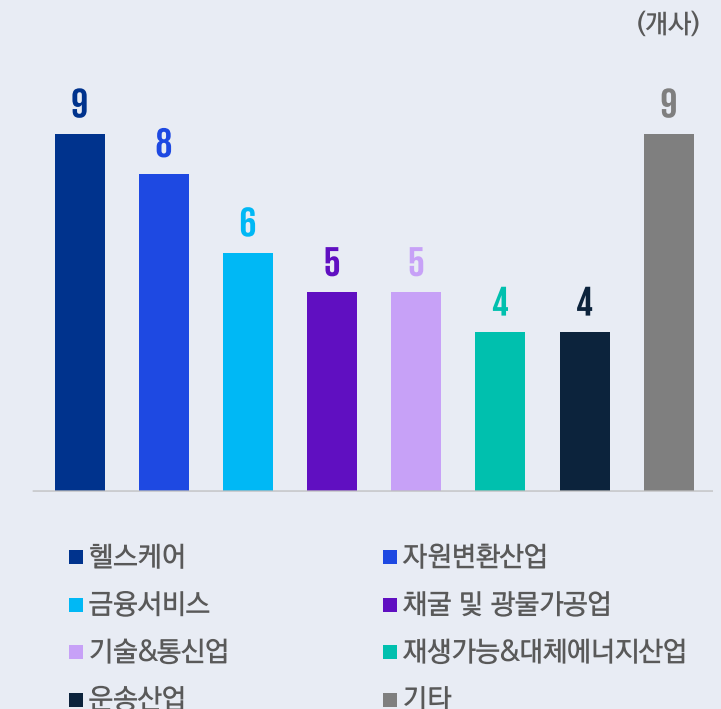
분석 대상인 50개 기업 모두 유럽경제지역(EEA)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준수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보고서를 가장 먼저 작성한 50개 기업을 'FAST 50'으로 지칭하며 공시 보고서들을 분석했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산업 분포

분석 대상인 50개 기업 가운데 특정 산업 비중이 18%를 초과하지 않는 등 표본은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고서 분석 결과

다양한 범주의 IRO(영향·리스크·기회)

ESRS 기준에 따른 공시의 기초는 중대한 IRO(Impact, Risk and Opportunity, 영향·리스크·기회)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기업들은 처음 겪는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DMA)’ 프로세스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IRO를 분류·제시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의 보고이행 실무지침에도 불구하고 CSRD(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빠른 시행 일정으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실무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공시와 관련된 주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중 중대성’ 개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대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며, KPMG는 추가지침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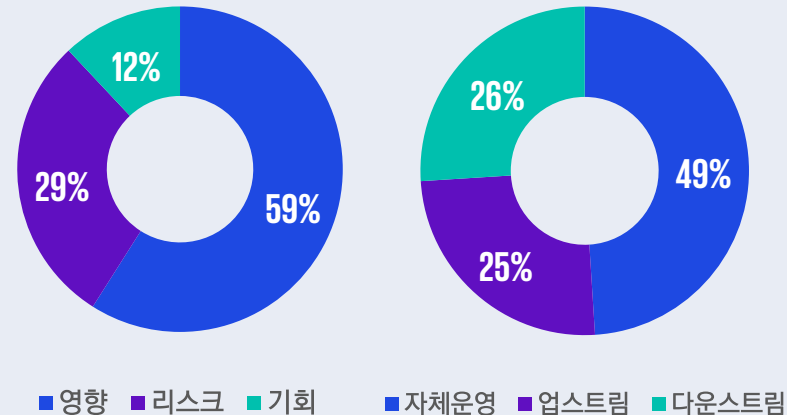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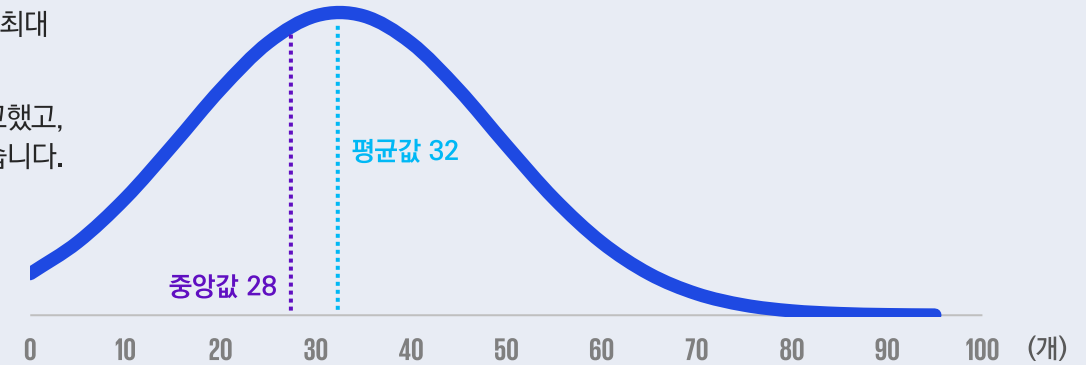
Key learning

동 요인들로 인해 기업들이 기업 전략 및 전략과 IRO 간 연계에 중점을 두기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에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대한 IRO(영향·리스크·기회)의 총 개수

공시된 IRO 수의 범주는 최소 9개에서 최대 93개까지 다양했습니다.

17개 기업이 평균보다 많은 IRO를 보고했고, 이 중 4개 기업은 60개 이상을 보고했습니다.



IRO의 유형 및 위치

식별된 IRO 중 절반 이상이 ‘영향(Impact)’이었으며, 그 중 3분의 2는 ‘부정적 영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전체 IRO 중 거의 절반은 기업의 자체운영(Own operations)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IRO를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고, 실제 영향(Actual impact)과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 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기후공시에 대한 준비도 향상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지속가능 활동은 기후 변화에 집중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탈탄소화가 포함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기후 관련 계획에 투자하고, GHG 프로토콜 및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따른 공시에 익숙해졌습니다.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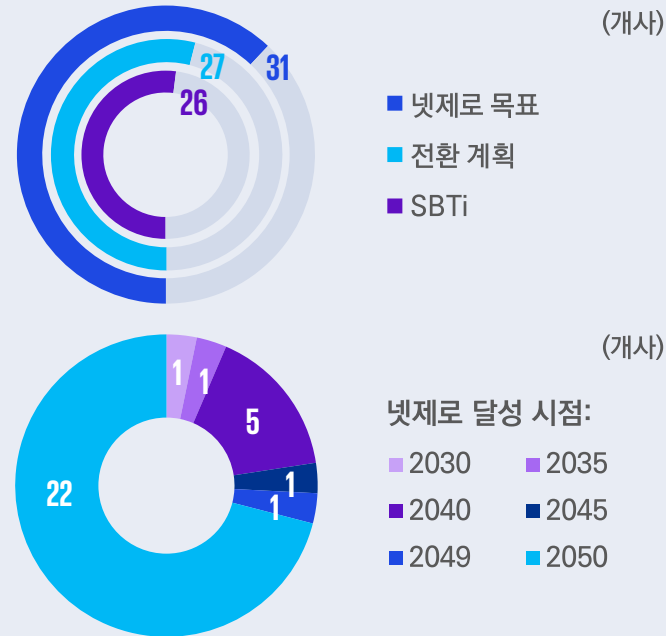
따라서, ESRS에 따른 첫 번째 공시임에도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시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잘 준비되었으며, 이는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1개 기업의 경우 기후 변화는 '중대한 주제'가 아니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Key learning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준비가 잘 되어 있으나, 오염 등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넷제로(Net-zero)

넷제로 목표를 설정한 기업은 조사 대상 50개 기업 중 62%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기업이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기본 프레임워크로 채택하는 한편 전환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넷제로를 목표하는 기업의 71%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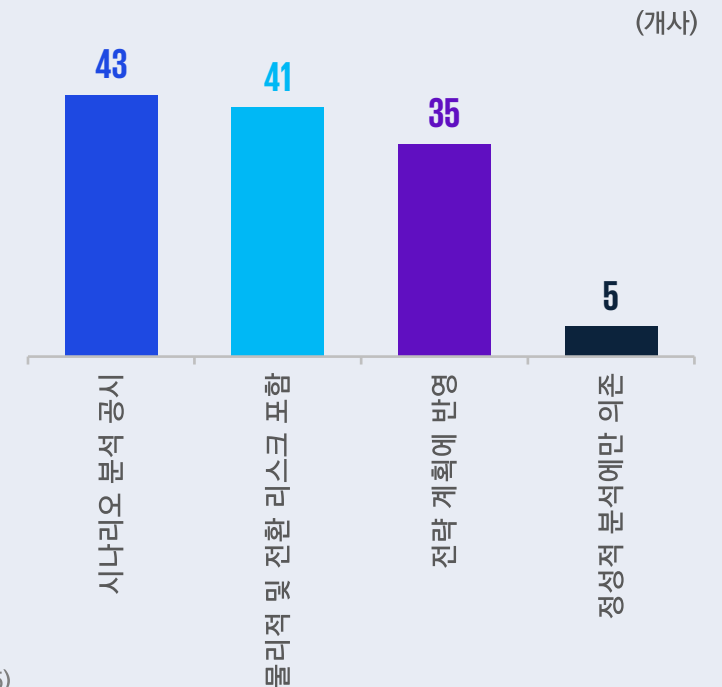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 정보를 공개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8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나리오 분석이 자사 전략 계획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성적 분석에만 의존한다고 답한 기업은 5개사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IRO는 다섯 가지 주제에 집중

ESRS는 기업이 중요한 IRO(영향·리스크·기회)를 식별할 때 고려해야 할 주제, 하위 주제, 세부 하위 주제를 상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이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IRO 중 약 7%는 기업특성 관련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O에 관한 공시에는 해당 활동이 밸류체인(Value Chain)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련 시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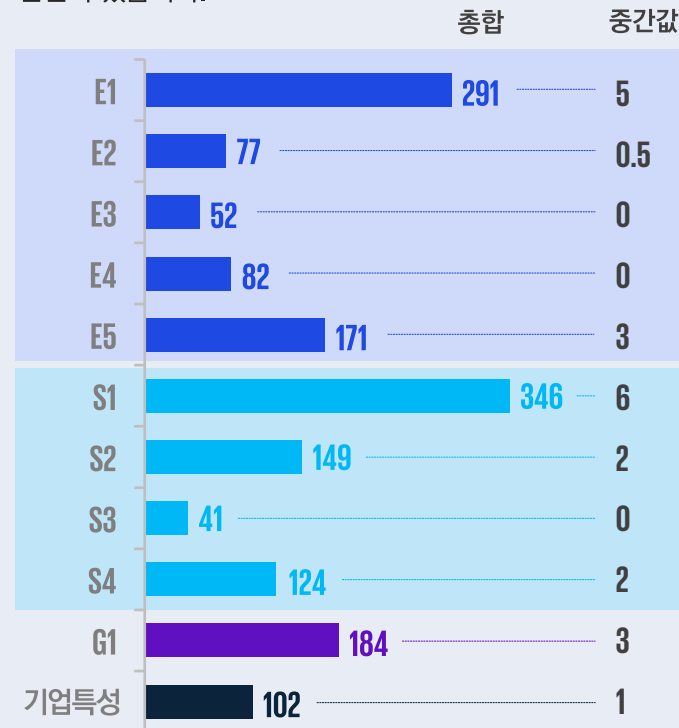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개정안의 일환으로 ESRS의 일부 영역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첫 번째 보고 단계에서 나타난 IRO의 분포는 향후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Key learning

IRO를 주제별로 대응시키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ESRS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될수록 이 과정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IRO(영향·리스크·기회)의 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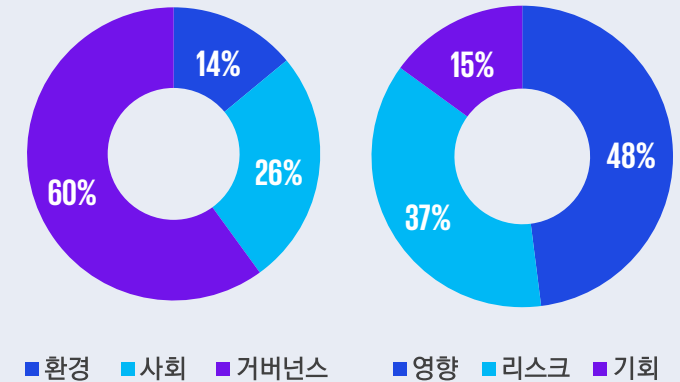
기후 관련 주제 외, 대부분의 IRO는 근로자(ESRS S1 및 S2), 거버넌스(ESRS G1), 자원 사용 및 순환경제(ESRS E5)와 관련이 있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기업특성 관련 주요 IRO 분포

기업특성 관련 IRO 항목 대부분이 거버넌스 관련 주제였으며, 거버넌스 관련 주제 중 절반 가량이 '영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31%
- ✓ 안전과 삶의 질, 18%

맞춤형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강조

ESRS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기업과 실무진뿐 아니라, 중요한 주제를 판단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은 대면 접촉을 통해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면, 설문지와 같은 수동적인 방법은 지침이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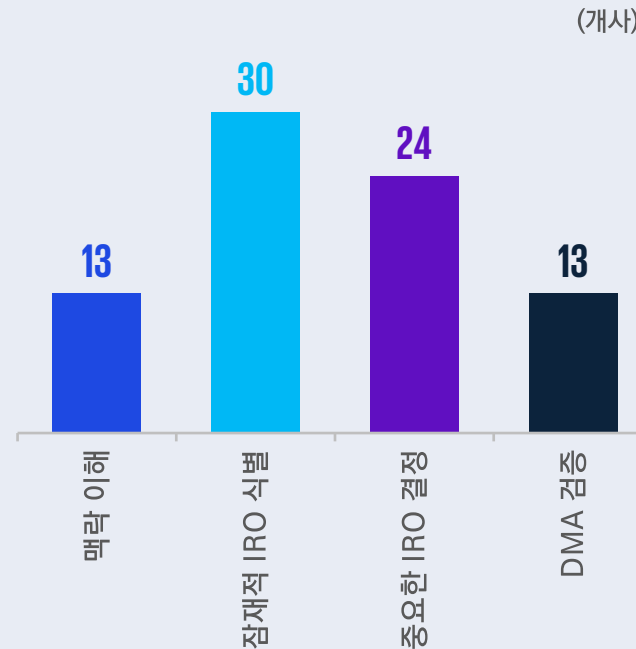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가 잘 정립된 기업이나, 직접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에 투자한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평가됩니다.

Key learning

이해관계자들의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DMA) 개념에 대한 이해도, 기술 및 경험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참여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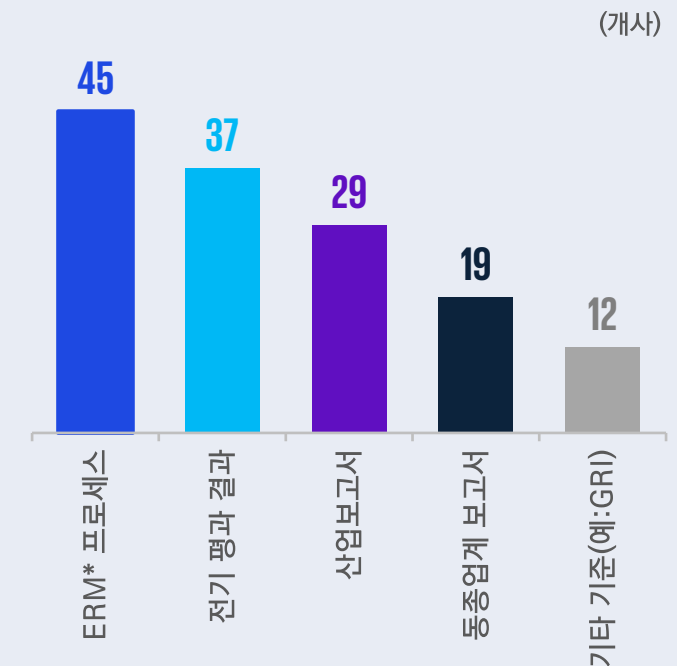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중 중대성 평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가장 일반적인 단계는 ‘잠재적 IRO 식별(60%)’이었으며, 다음으로 ‘중요한 IRO 결정(48%)’이 뒤를 이었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이중 중대성 평가에 활용된 기타 정보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 외, 아래 항목들이 이중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자주 인용된 주요 요소였습니다.



Note*: ERM은 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약자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의미

영향 중대성 평가에 치우친 이중 중대성 평가

ESRS의 시행은 이중 중대성 개념이 대규모로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다음 사항들을 결합합니다.

-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게 익숙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점에서 본 영향 중대성
- ☑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에게 익숙하며, 회계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관점에서 본 재무적 중대성, 이는 재무제표 중요성과 일치함

‘FAST 50’ 기업들은 리스크·기회보다 영향을 더 많이 공시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특정 문제가 직원이나 고객 등의 그룹에게는 중요하지만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영향 중 많은 부분이 정말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 ☑ 영향·리스크·기회 간의 관계가 예상했던 대로 도출될까요?

Key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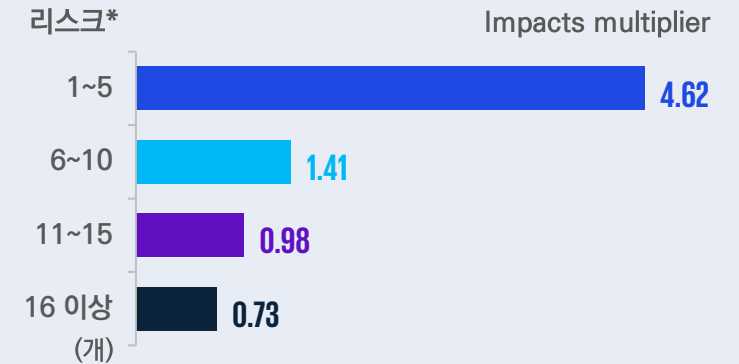
영향과 리스크·기회 간의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영향 vs 리스크

28%의 기업은 1개에서 5개 사이의 리스크를 식별하였으나, 부정적인 영향의 식별 개수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리스크를 식별할수록 이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리스크 대비 부정적인 영향의 평균적인 비율은 1.3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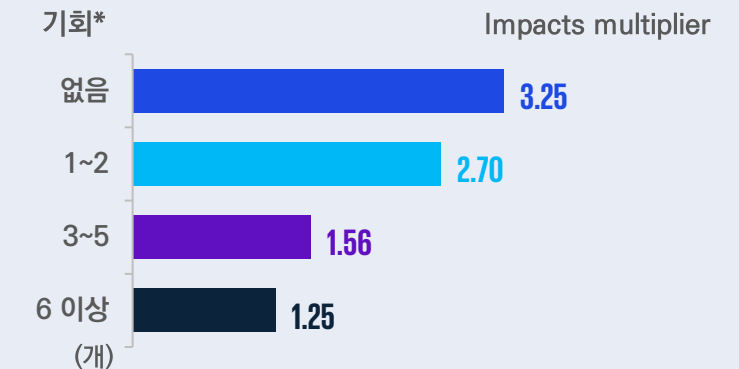
* 상대적인 영향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리스크가 0인 경우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영향 vs 기회

16%의 기업은 기회를 전혀 식별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식별하였습니다.

리스크와 유사하게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식별할수록 이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기회 대비 긍정적인 영향의 평균적인 비율은 1.61입니다.



* 상대적인 영향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회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데이터 지표를 넘어 기업의 스토리를 전달

‘FAST 50’의 유럽 50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분석 결과, ESRS의 도입은 데이터 수집과 보고에 주안점을 둔 작업이며 복잡성을 지닌 작업이라는 특징이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지표에 더 집중하여 보고 이전에 있는 IRO 관리의 정책 및 행동 측면을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정책, 행동, 목표 개발에서 성숙도를 지닌 기업일지라도, ESRS의 최초 도입을 위해서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가 필요하여,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스토리를 한 걸음 뒤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기업의 스토리와 전략과의 연결고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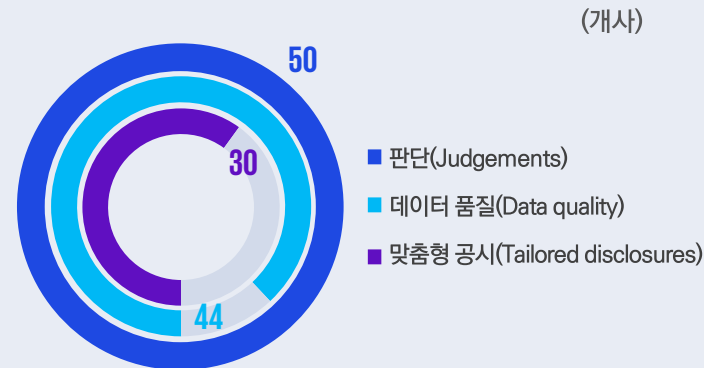
Key learning

일부 기업들은 정성적 내용(IRO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과 정량적 지표 간 보고 분량의 균형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데이터 품질

모든 기업은 자사가 내린 판단 근거에 대하여 공시했으며, 88%의 기업이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시는 일반적인 내용 수준에 그쳤으나, 그 중 60%의 기업은 자사의 특정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일정 부분 제공했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문제는 데이터 품질의 이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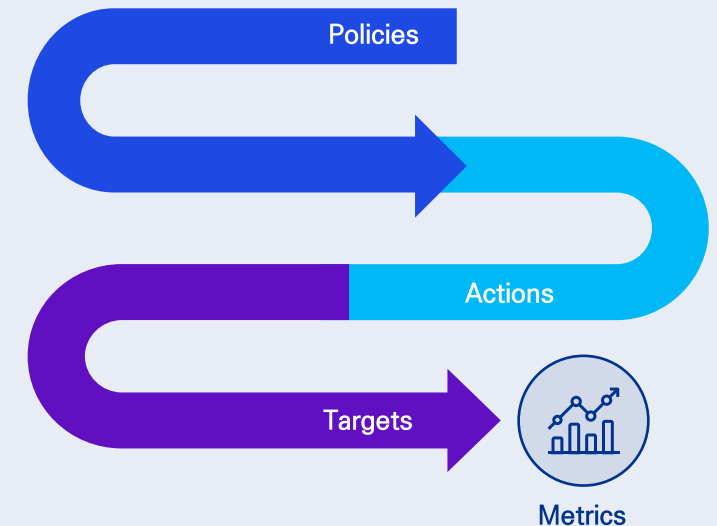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IRO(영향·리스크·기회) 관리

IRO 관리의 회사 정책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기업의 활동과 목표를 결정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표를 공시하는 것은 IRO 관리 프로세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공시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 성과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툴의 판독 가능성에 대비

대부분의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요소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툴은 이러한 시각화로 인해 특정 요소를 해석하는 데 오류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프롬프트(Prompts, 입력 명령)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초기부터 AI 활용을 염두에 뒀서 설계하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메시지 해석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태깅¹⁾을 위한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분류 체계는 이르면 2026년 이후에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옴니버스(Omnibus) 제안에 따라 추가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ey learning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공시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 또는 태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독성을 유지하면서도 AI 분석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ote: 디지털 태깅(Digital tagging)이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처리할 수 있도록 특정 메타데이터(Metadata) 또는 태그(Tags)를 추가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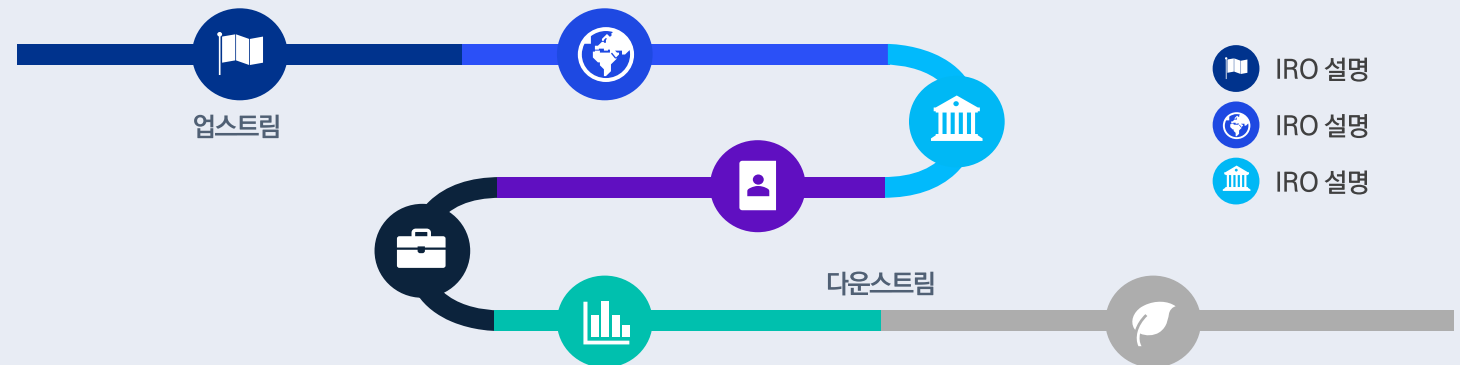
IRO(영향·리스크·기회) 요약

사람들(Humans)은 도표로 제공되는 IRO를 가독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 툴은 도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제	IRO 분류	밸류체인 위치	기간
설명	- 영향 (긍정적 또는 부정적) - 리스크 또는 - 기회	- 업스트림 - 자체운영 그리고/또는 - 다운스트림	- 단기 - 중기 그리고/또는 - 장기

밸류체인 시각화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에 IRO를 반영한 밸류체인 시각화는 사람들(Humans)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I 툴은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를 보였으며,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과 범례를 필요로 했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전략과의 연계성 고려

많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정보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에서 중복된 내용이 많았으며, 각 섹션에 다양한 정보를 담는 것과 교차 참조(Cross-referencing)를 활용하는 작업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자사의 고유한 스토리와 전략 방향을 전달하는 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기보다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만큼 많은 보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Key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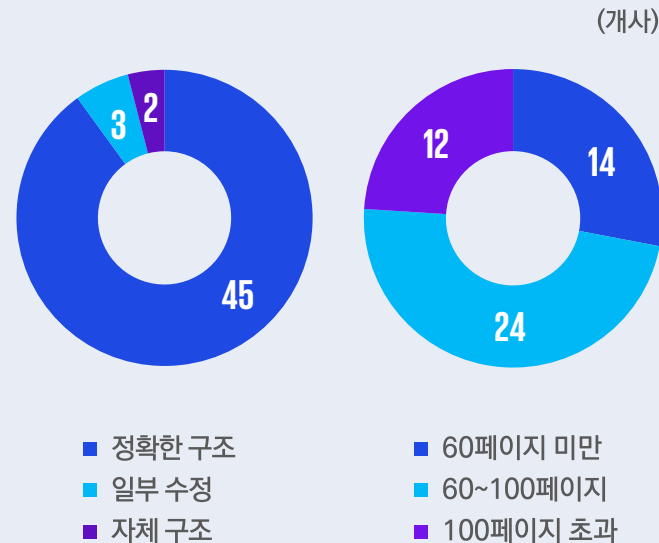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해당 데이터가 전달하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 스토리가 기업 전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구조와 분량

전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90%는 ESMA(유럽증권 시장감독청)가 권장하는 ESRS의 구조를 따랐습니다.

모든 지속가능 보고서는 경영 보고서안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 보고서 형태로 보고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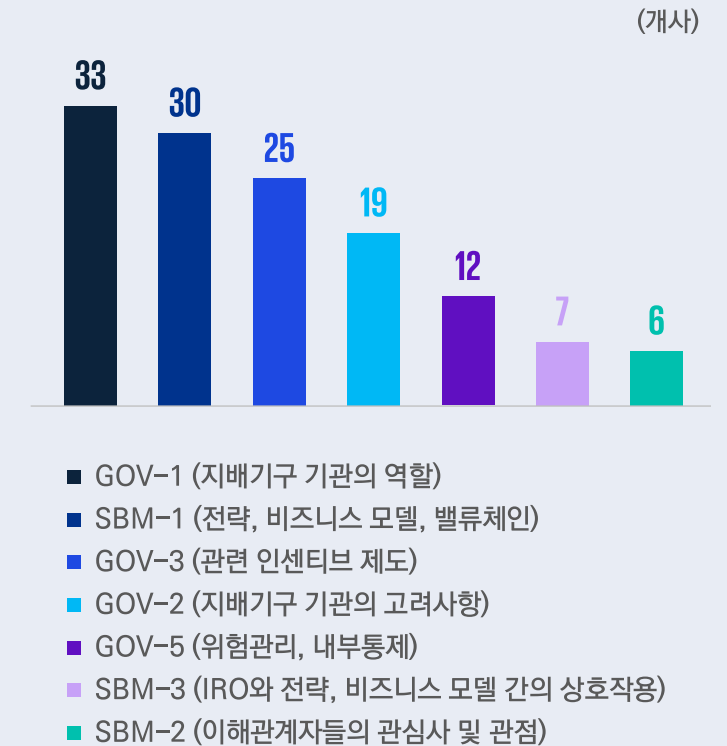
지속가능 보고서의 평균 분량(참고 문헌으로 포함된 정보 제외)은 84페이지였고, 중간값은 75페이지였습니다.



Source: KPMG International "Real-time ESRS: FAST 50" (March 2025)

보고서 다른 부분을 참조한 공시 사항

82%의 기업은 일부 정보를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참조한 형태로 포함하였습니다. 아래 차트는 가장 많이 참조된 공시 항목을 나타냅니다.





3. 한국 기업 ESG 정보공시 대응 시사점

ESRS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개선하기를 원하거나, 향후 ESRS 보고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5가지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01



공시성숙도 고려한
ESRS 대응
전략 수립

공시 Practice가 어느 정도 확립된 주제(예: 기후 변화)부터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ESRS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02



맞춤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설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관계자 선정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견수렴 절차 설계가 이중 중대성 평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03



재무 중대성 평가
방법론 개선

재무 중대성 평가는 영향 중대성 평가 대비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RO(리스크·기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04



내용 분류·통합 수준,
최적의 균형점 식별

공동된 정책, 행동, 목표를 공유하는 ESG 주제를 통합해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의 수준이 너무 높으면 공시정보를 이해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통합의 수준이 너무 낮으면 내용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05



ESRS 보고서
구조 최적화

ESRS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ESG 전략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Source: 삼정KPMG ESG 비즈니스그룹

약어 및 주요 용어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유럽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DMA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이중 중대성 평가

외부 환경·사회적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기업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두 가지 축의 이중 중대성 평가가 ESG 정보공시의 중요 접근 방법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GHG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IRO (Impacts, Risks, and Opportunities)

영향 · 리스크 · 기회

Omnibus 개정안 (Omnibus Proposals)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제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지속가능성 보고대상 기업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ESRS 공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공시 정보를 정량 정보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링크](#)에 담겨 있습니다.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그룹

Audit(정보공시·인증)

김진귀
부대표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손민
상무
T 02-2112-3036
E minson@kr.kpmg.com

한대근
상무
T 02-2112-6607
E dhan2@kr.kpmg.com

이병훈
상무
T 02-2112-3413
E blee@kr.kpmg.com

Consulting Services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허인재
상무
T 02-2112-3399
E ihur@kr.kpmg.com

이승근
상무
T 02-2112-0992
E seungkeunlee@kr.kpmg.com

Additional resources

KPMG는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최신 정보와 함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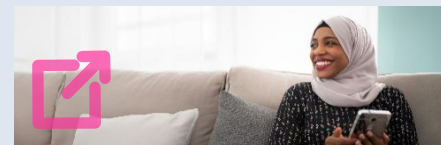
ESRS Today

ESRS 가이드라인과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ISSB Standards Today

전 세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시합니다.



Connected Reporting Today

각 사의 전략, 지속가능성 및 재무 정보에 맞춰 인사이트 및 가이드라인을 지원합니다.



KPMG IFRS on LinkedIn

IFRS 및 ESRS 기준에 관한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